

# 목포시, 소각장 설치 놓고 인접 무안군민과 갈등

### 무안 마동마을 “시·군 경계지역 혐오시설로 30년간 고통” 주장 목포시 “현행법상 보상 불가... 동의 여부 상관없이 진행할 것”

목포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소각로가 반경 1km 가량 떨어진 무안군 마동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목포시는 포화상태인 매립장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소각로는 순환형 정비사업(문어둔 쓰레기를 다시 파내 흙과 쓰레기 분류 후 소각)의 일환이며 쓰레기 대란을 맞고 있는 목포시는 소각시설 만이 대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무안군과 시설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무안군민들은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혐오시설을 지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

히 무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83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대양산단 인근에 1일 최대용량 220t, 소각열 회수시설 6.5MW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로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목포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 것에 따른 대안 시설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목포 쓰레기 매립장은 98%가

차 있고, 현재에도 하루 150~160t의 쓰레기가 쌓여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곳 매립장에 순환형 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문어둔 쓰레기를 다시 파내어 흙과 쓰레기를 분류한 후 다시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태운다는 내용이다.

목포시는 현재 매립된 쓰레기 가운데 15만 가량이 소각 가능할 것으로 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소각시설 건립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장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이곳과 불과 1km 이내에 있는 무안군 삼항읍 왕산리 마동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마동마을은 목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악취·해충 등으로 시달려 왔지만 목포시가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또다시 자신들만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과 인접한 무안지역 14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목포시 대양동 일대에는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은 물론 화장장과 도축장 등도 들어서 있다”면서 “추가 시설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은 목포시에 보낸 소각장 설치 협의 회신에서 “목포 소각장 예정지와 인접한 무안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더 이상 쓰레기 문제를 방지할 수 없을뿐 더러 법

적으로 무안지역에 보상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 다.

폐기물 처리시설 축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직접 영향권 주민은 이주시키고, 300m 내 간접영향권은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있다. 마동마을은 소각로 설치 장소와 바다를 앞에 두고 1km 이상 떨어져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마동마을을 상대로 소각로 설치에 따른 전략 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주민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안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지친 일상에 심포” 여름꽃 흐드러진 남악신도시



롯데마트 인근 유희지에 조성된 메밀꽃 단지.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주요 거리에 여름꽃단지를 조성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활짝 핀 꽃을 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가로화분 467개를 배치하고 가로화단 3곳에 산파첼스, 메리골드, 맨드라미, 페추니아 등 여름꽃 2만5700본을 심었다.

대죽도 고수부지 3204㎡에 백일홍을 식재하고, 롯데마트 인근 유희지 1만1천172㎡에 메밀 씨앗을 파종했다. 최근에는 삼항읍 주민자치위원회 20여 명이 남악을 다채로운 꽃이 만발한 화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앙공원 화단 가꾸기에 나서 수국 등 4종의 꽃모종을 심었다.

군은 중앙공원에도 임파첼스, 화산석 등을 활용한 꽃단지를 만들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포토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쟁결음

### 목포~완도 1단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완도군이 군을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1단계(목포-완도)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서울-제주 고속철도 노선 계획 중 완도군 경유에 대한 노선 대안 수립, 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무안공항에서 해남, 완도까지 1단계(길이 85.12km, 사업비 2조8000억원), 완도에서 제주까지 2단계(길이 110.38km, 사업비 21조6600억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제주도, 인근 지자체와 협업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20대 대선 공약은 물론 국가철도망 국가계획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완도군민연맹회와 완도군청년연합회 주최로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민과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 기대 효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민은 더욱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 근접 사업의 효과는 배가 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ejchung@

## 국유림 덩굴제거사업 추진 영암국유림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가 조림지를 중심으로 국유림 137ha 덩굴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조림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덩굴의 생장이 가장 왕성한 6월부터 시작했다.

덩굴류는 조림목을 감고 올라가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수형을 불량하게 해 목재 가치를 떨어뜨린다. 덩굴을 제거해 수목의 원활한 생장을 도와 양질의 목재생산과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덩굴제거사업은 주로 칩덩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제거하는 뿌리굴취 작업방법을 적용한다.

이번 사업에는 소금을 활용한 친환경 작업 방법을 일부 지역에 적용하고 효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 진도 2곳 LPG 배관망 지원사업 선정

### 송현마을·지산면 관마마을 국비 등 3억3000만원 투입

진도군은 진도를 송현마을과 지산면 관마마을이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 부담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모든 세대를 지하 배관으로 연결, LPG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주택에 설치된 가스용기가 철거되고 배관망을 통해 LPG 가스가 공급된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LPG 희망충전 기금’에서 자부담의 100%, 차상위 계층

은 50%를 지원한다.

진도읍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으로 지난 2월부터 진도읍 2900세대에 LPG 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2개 마을을 포함해 진도군은 총 3개 마을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으로 기존 등유와 LPG 용기 사용 대비 30~50%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무안군의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김대현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이 속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정기적으로 소상공인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